* + 1. 교수님 코멘트

\* Halevy (2018) 가 핵심 참고문헌. 여기 나온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듯.

1. Friendship 관련

1) risk aversion 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risk tolerance 임. 그리고 싼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아니라 코드 상에서는 비싼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었음. 1 – data값 을 해야 함.

2. figure

중앙값을 이영해서 high, low 를 구분하자. 지금은 일부 그림은 0.1 일부는 중앙값을 쓴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기.

3. Table 2

Risk aversion 넣은 거 안넣은거 따로 해보기.

모델2가 결측값이 많은데, 왠지 653개로 나오는게 맞는듯. 그 653개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모델1로 돌려보는 작업도 필요함.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, height 등 결측치 있는 변수가 문제인 건데, 그 결측치에는 0이라는 값을 assign 하고, 추가적으로, height\_missing 이라는 더미를 따로 만들어서 돌리면 됨. (이 변수는 미씽이면 1, 아니면 0인 더미변수임)

4. figure 5

Convex combination 으로 정해질 텐데 어느 쪽에 weight 이 더 많이 가는걸까? 가 궁금. Collective choice 때 어디로 가중치가 붙느냐.

Non-parametric risk aversion

Min/max의 average를 잡고 그 안에서 얼마?

단 몇 년전에 해봤는데 collective 가 min max 의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음.

5. Table 6

CCEI는 빼고 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을 듯. 일단 둘 다 해보기

6. figure 7. (a)

Uloss 는 Halevy 변수대로 parametric 하게 추정한건데, 사실 문제가 많은 변수임.

아예 뺴는 것도 고려중이고, uloss 작업은 후순위로.